

2024  
Vol.05

# TALK<sup>2</sup>

[특투]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CSG Magazine

# Contents

##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깊은 통찰 ..... 6

희로애락의 역사와 정신

##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창신의 한 문장 ..... 9

열정 한 문장

특뷰 [TALK<sup>2</sup> + Interview] ..... 14

CDC 김병준 GM

CEO 두줄 노트 ..... 20

성공의 필요조건

Special Page ..... 22

CSG 광고

##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MX Designer ..... 25

QD

CSG News Pick (#창\_뉴\_픽) ..... 32

#여성리더십 #Offshore #개선제안  
#Workwear #Craftsmanship

Advertisement ..... 41

테니스 동호회 / 피스

Lean 단상 ..... 42

35호 커뮤니케이션

Trend Catcher ..... 44

News Clipping 71호

#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 한 장에 담다



2002년 신사옥과 CDC 오픈으로 기존 장림 공장의 짐들을 모두 정리하고 이사하는 날, 공장 앞 계양대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서리는 헐리고, 하얀 천은 색이 바래 있었지만, 태극 문양과 전공암리 4괘는 그 어떤 태극기보다 선명해 보였다. 순간 가슴이 저려왔다. 회사 설립 이래 시련과 아픔, 성공과 성장의 모든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태극기는 현재도 계양대 대신 액자에 담겨 CDC 건물 입구에서 직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주요 손님들이 적어준 응원 메시지도 담겨 있다. 그간의 희로애락과 창신의 정신이 담긴 상징이다.

1882년은 대한민국 태극기가 최초로 사용된 해다.

정확히 100년이 흐른 1982년,

창신의 역사도 공장 앞 계양대에서 펄럭이던

한 장의 태극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100년 기업을 향한 위대한 여정도 지난 43년의 흔적이**

**담긴 이 낡은 태극기가 함께 할 것이다.**

#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The AceMaker

The AceMaker | 창신의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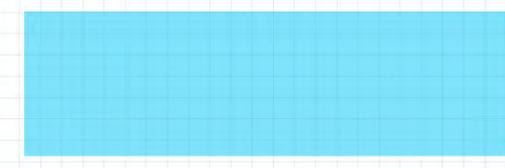
## 창신의 한 문장

전 구성원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창신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한 문장으로 나눕니다

### 2024 신규 입사자의 '열정 한 문장'

올해 신규 입사자들(7월 10일 기준)이 창신에서 꿈꾸는 미래, 창신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한 본인만의 다짐과 각오를 '열정 한 문장'을 통해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이들의 힘찬 첫 걸음을 응원해주세요!

# 창신에서



# 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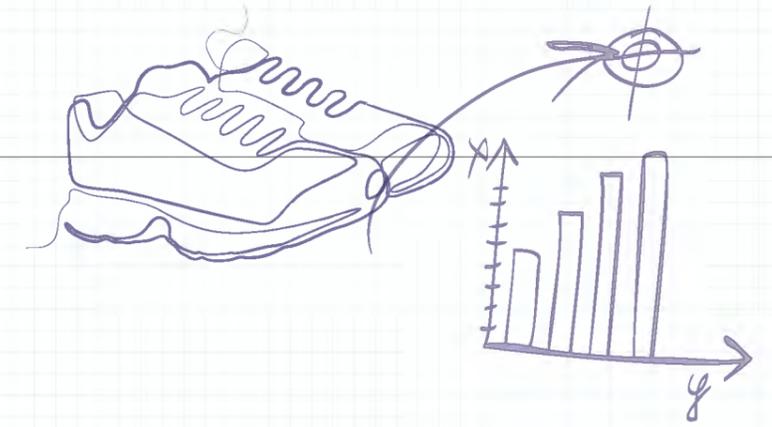
...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  
셰프의 소금 같은 사람  
퍼즐의 마지막 조각  
추진력

# 창신의 한 문장

2024 신규 입사자의 '열정 한 문장'

## 창신에서 [ ]이 되겠다



### Air 가 되겠다.

김난경 인턴 | Category CE

나이키의 에어 시리즈가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수십 년 동안 사랑을 받는 것처럼, 창신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오래 근무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셰프의 소금 같은 사람 이 되겠다.

김명일 부장 | MI팀

창신에서의 배움과 그간의 경험, 전문성을 잘 접목하여(셰프), 창신의 꼭 필요한(소금)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 마당발 이 되겠다.

박혁준 인턴 | M's Lifestyle TD

TD 직무는 다양한 유관 부서 및 워크샵 분들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 모든 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서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 핫 멜트 Hot-Melt 같은 사람 이 되겠다.

박현민 인턴 | Running TD

핫 멜트(Hot-Melt)처럼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끈기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퍼즐의 마지막 조각 이 되겠다.

김성중 사원 | 창신정밀 경영지원팀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없으면 심적 불편함을 주듯이, 직원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젖은 낙엽 이 되겠다.

김승훈 인턴 | Fitness TD

젖은 낙엽처럼, 더 이상 이직을 고려하지 않고 창신과 함께하겠다는 저의 굳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젖은 낙엽처럼 창신에 착 달라붙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 Vision 있는 사람 이 되겠다.

박혜빈 사원 | MI팀

창신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일치시키고 함께 이뤄나가면서, 창신과 함께 저도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 호랑이 가족 같은 사람 이 되겠다.

손영신 인턴 | Jordan TD

호랑이처럼 강력한 퍼포먼스와 분위기를 보여주면서도 야생적인 모습은 지우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프롬프트 가 되겠다.

김재은 사원 | Digital PCC팀

프롬프트라는 의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 내기 위해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신입 사원으로서, 창신이 최적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 이 되겠다.

박가현 사원 | 창신정밀 전략/기획

면접 때의 떨림과 간절함이 있으면, 어려워 보이는 업무일지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좋은 동료 가 되겠다.

손효정 사원 | Jordan TD

빠르게 업무를 습득하여 창신 구성원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동료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 흐르는 물과 같은 사람 이 되겠다.

신현중 부장 | JJ CKP

흐르는 물이 언제나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물인 것처럼, 창신에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 콩나물 같은 사람 이 되겠다.

박시은 인턴 | Innovation TD

빠르게 성장해서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 위버멘쉬 Übermensch 같은 사람 이 되겠다.

박평국 인턴 | T&F TD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인 위버멘쉬(초인)처럼, 저 역시 배움의 자세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고, 동시에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집요한 사람 이 되겠다.

여태경 부장 | 설비보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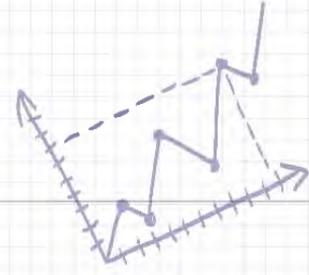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소홀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발전하는 사람 이 되겠다.

오세종 대리 | ERP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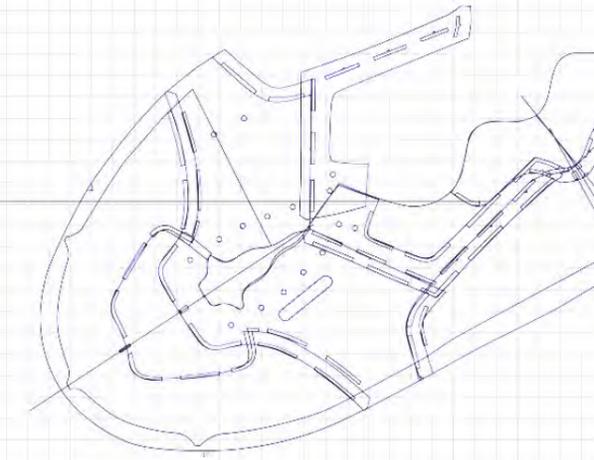
첫 시도가 부족하더라도 실패를 성공의 거름으로 삼아 계속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창신의 한 문장



2024 신규 입사자의 '열정 한 문장'

## 창신에서 [ ]이 되겠다



<p><b>믿음을 주는 사람</b>이 되겠다.</p> <p><b>유승균</b> 사원   창신정밀 3D CAM</p> <p>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p>	<p><b>추진력</b>이 되겠다.</p> <p><b>윤지영</b> 사원   BD팀</p> <p>마라토너처럼 잔잔하고 긴 인내심을 가지고 실력을 쌓아, 때로는 단거리 선수처럼 폭발적인 스피드로 성과를 만드는 추진력이 되겠습니다. 멋진 팀원분들과 함께 창신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p>
<p><b>원가 전문가</b>가 되겠다.</p> <p><b>이건</b> 사원   원가회계팀</p> <p>산업의 기초가 되는 생산 과정과 원가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신발 제조의 전체 흐름까지 이해하겠습니다.</p>	<p><b>에어컨 같은 사람</b>이 되겠다.</p> <p><b>이지한</b> 대리   MI팀</p> <p>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에어컨처럼, 모두가 편안하게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p>
<p><b>신발 전문가</b>가 되겠다.</p> <p><b>임창섭</b> 인턴   Kids TD</p> <p>창신의 TD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신발 관련 전문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 개발 지식 습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b>태양의 흑점 같은 사람</b>이 되겠다.</p> <p><b>임희제</b> 사원   창신정밀 3D CAM</p> <p>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때문에 검게 보이는 흑점이지만 강한 자기활동을 보이며, 태양 플레이어로 폭발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창신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p>
<p><b>All-rounder</b>가 되겠다.</p> <p><b>장세민</b> 차장   창신정밀 금형</p> <p>현재 포지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되어 팀에 도움을 주는 멀티 플레이어가 되기 위함입니다.</p>	<p><b>필요한 사람</b>이 되겠다.</p> <p><b>장유현</b> 인턴   Category CE</p> <p>아직은 배움의 단계라 모르는 게 많지만, 나중에는 개발에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p>

<p><b>뿌리 깊은 나무</b>가 되겠다.</p> <p><b>장은영</b> 사원   GP팀</p> <p>선배님들의 가르침을 저만의 것으로 소화시켜,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맡은 업무를 묵묵히 해내겠습니다.</p>	<p><b>인사를 잘 하는 사람</b>이 되겠다.</p> <p><b>전혜민</b> 인턴   Kids TD</p> <p>인사를 잘하는 것은 업무를 잘 배우고 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p>
<p><b>즐기는 사람</b>이 되겠다.</p> <p><b>최신영</b> 사원   W's Lifestyle TD</p> <p>회사를 사랑하고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일에 애정을 갖고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b>배운 후에는 실천하는 사람</b>이 되겠다.</p> <p><b>최재진</b> 과장   창신정밀 재무/회계</p> <p>이론만 외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p>
<p><b>대체 불가능한 사람</b>이 되겠다.</p> <p><b>탁도영</b> 사원   Digital PCC팀</p> <p>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저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p>	<p><b>보통의 사람</b>이 되겠다.</p> <p><b>허정환</b> 차장   MI팀</p> <p>제 업무가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보통의 업무가 되길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p>
<p><b>럭키비키한 사람</b>이 되겠다.</p> <p><b>형슬미</b> 대리   경영지원팀</p> <p>밝고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p>	<p><b>신뢰할 수 있는 사람</b>이 되겠다.</p> <p><b>홍준기</b> 대리   ITDS팀</p> <p>혼자가 아닌 함께 일을 하는 회사에서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p>

## 특부 [TALK<sup>2</sup> + Interview]

창신 에이스들의 성장 스토리와 도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 늦깎이 신입, 705명을 이끄는 CDC 수장이 되다

CDC 김병준 GM



##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던 절박함으로 20년간 끊임없이 성장한 언더독의 반란, 김병준 GM을 소개합니다.

신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언더독 청년 김병준은 창신에서 20년 만에 7개 그룹 705명을 책임지는 CDC 수장으로 성장했다. 동기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사했지만, 하루하루 버티고, 조금 더해보자는 절박함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최초의 공채 출신 GM이 되었다. 그에게 창신은 단순한 직장을 넘어 삶과 인생을 180도 바꿔 놓은 '은인'이다.

## 창신 최초 공채 출신 GM

### 인생은 선택의 연속, 정답은 없어. 선택한 길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

#### Q 그동안 어떤 업무들을 해왔나

2003년 12월 공채 7기로 입사해 TD(Tech Developer)로 창신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미국 나이키 PCI(Product Creation Immersion) 프로그램 및 VJ에서 각각 8개월 동안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후 TDD(Tech Development Director), FBG(Future Business Group), Modernization, Dimensions 등 여러 직무를 거쳐 2020년 11월부터 CDC GM을 맡고 있다.

#### Q 언더독의 삶을 살아왔다고

오랜 기간 언더독으로 살았다. 공채로 입사했지만, 동기들보다 6~7살 정도가 많았고, 기획 직무를 희망했지만 면접에서 제안 받은 것은 생소한 TD였다. 당시에는 취업이 절실했기에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수락했다. 경력을 인정받아 '계장' 직급을 받았지만, 신발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만큼 주위의 시선은 곱지않은 않았다. 업계 용어는 낯설었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던 터라 '한 사람 뉘'을 해내는 것조차 버거웠다. 작업지시서의 영어는 해독 불가능했고, 사수에게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지금처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없던 시절, 막막함 속에서 자재 창고의 컬러 코드를 무작정 외웠다. 답답해 보였는지 사수가 처음으로 엑셀 파일을 건네주며 "코드 여기다 있으니 외울 필요 없다"라고 말했을 때의 안도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부터 신발 관련 자료라면 무엇이든 모으기 시작했고, 지금도 직원 교육과 자료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공채 1기 나이에 7기로 입사해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욱 절박하게 배움에 매달렸고, 그 결핍이 오늘이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Q GM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면**

신입 교육 마지막 날, 돌아가며 포부를 밝히는 자리에서 멋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GM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개발팀의 최고 수장이었던 GM이 멋있어 보였고, 솔직히 막연한 꿈이라 여기고 별생각 없이 뱉은 말이 었다. 그런데 그 말이 현실이 된 걸 보면, 말이 가진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이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팀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입사 전만 해도 간절하게 구직 활동을 하던 백수였다. 멋진 포부를 밝히긴 했지만, 속마음은 '창신에서 오래 일하고 싶다'는 간절함 뿐이었다. 미래를 생각할 여유 없이,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간들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내게 창신은 '은인'이었다. '진짜 열심히 하자,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20년을 버티다 보니 어느새 GM이 되어 있었다.



**Q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은**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은 2011년, 갑작스럽게 TDD가 되었을 때이다. 예상치 못한 인사이동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자리를 맡게 되었다. 어제까지 TD였는데, 하루아침에 9명 TD들의 팀장이 된 것이다. 물론 처음 팀장이 되어 기쁘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다. 잘해보고 싶다는 열정과 의지도 컸다. 하지만 7~8년 사이에 9명의 사람이 바뀔 정도로 쉽지 않은 자리였기에, 기쁨보다 부담감이 앞섰던,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나이키 요청도 많았고, 업무량도 많았기에 기뻐할 겨를도 없었다. 팀장으로서의 첫 경험은 부담과 걱정, 그리고 잘해내고 싶다는 열정이 공존했기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Q GM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는 자세이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을 들리기 싫어 질문하지 않았지만, 멘토를 통해 '멍청한 질문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완벽히 이해했거나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솔직히 질문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인사도 질문이라고 생각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해를 끼치지 않는 질문이라면 습관화하는 것이 좋겠다.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이해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질문이며,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다. 이 깨달음 이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하게 되었고, 질문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며, 동료들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해내는 것,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또 다른 노하우이다. 일을 하다 보면 본인 R&R(Role and Responsibilities) 이외의 업무가 맡겨지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코로나 전까지 창신을 비롯한 동종 업계 몇 곳이 모여 러닝대회를 개최했는데, 행사 기획 및 코스 개발 등 소위 말하는 잡일을 도맡아 했다. 당시엔 '왜 이런 일을 시키지, 회사 나가라는 것인가'라고까지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잡일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여러 스킬을 익히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결국에는 나를 더 성장시키고,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씨앗을 뿌리듯 꾸준히 노력해야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 “ 성취는 노력과 고생 뒤에 온다. 지금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야 ”

결과는,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 Q 최근 퇴사자가 좀 있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최근 퇴사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기에, Job Posting 및 해외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성취는 노력과 고생 뒤에 온다고 믿는다. 성취의 값이 클수록 더 큰 고생이 따르긴 했던 것 같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아예 회사를 옮기는 것은 권하진 않는다. 창신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성장한 뒤, 더 큰 목표를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진심으로 응원한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신뢰한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봤다'라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퇴사자 면접에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어떤 선택을 하든 정답은 없다. 선택한 길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꼭 전한다. 나이키 공동 창업자인 빌 바우어만(Bill Bowerman)도 “Accept the challenge. Trust that you're the best one for the job.”라고 말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최고인 것을 믿으라는 이 말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 회사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문제 속에 답이 있을 때가 많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좋겠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 Q GM님이 그리는 CDC는 어떤 모습

CDC를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창신의 성장을 이끄는 기관차이자,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밴드와 같은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

기관차는 객차나 화물차를 이끌며 가치를 창출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TD는 밴드의 싱어처럼 주목받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파트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할 때 진정한 시너지가 발휘된다.

같은 맥락인데, 신입 시절부터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낯선 환경에서 인사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결국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냉랭한 반응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결국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이런 나의 초심처럼 먼저 인사하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는 CDC를 만들고 싶다.

### Q 올해 목표, 창신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나이키 초창기, 판권 문제로 '블루 리본 스포츠(Blue Ribbon Sports)'를 달아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이키 공동창업자인 필 나이트(Phil Knight)는 "This i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ppen to us."라며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집중했고, 결국 나이키는 성장했다. 창신 역시 같은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올해 우리 목표는 비즈니스 탈환이다. 쉬고 있는 라인을 다시 활성화하여 10% 성장을 이끌고, 원래 창신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창신은 나이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FY25~27(나이키 회계연도, 2024년 6월 ~ 2027년 5월)까지 네트워크 평균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며, 올해를 발판 삼아 2026년까지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년 전 늦깎이 신입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배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달라. 아웃룩 일정에서 빈 시간은 언제나 괜찮다. 사내 전화는 8898이다.



## CEO 두줄 노트

사장님의 생각과 통찰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칼럼으로, 격월지로 전후 두 달 간의 사장님의 인사이트를 두 문장, 두 문단 형식으로 전합니다



## 직장 선배로서 전하는 성공의 필요조건

지난 7월 16일 첫 진행된 사장님과 직원들의 진솔한 대화의 시간, **CEO Open Talk**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닌, 학식이 아닌 **성실성**이다. 이는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도 직결된다. **고민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내고자 하는 의지와 치열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결과물은 믿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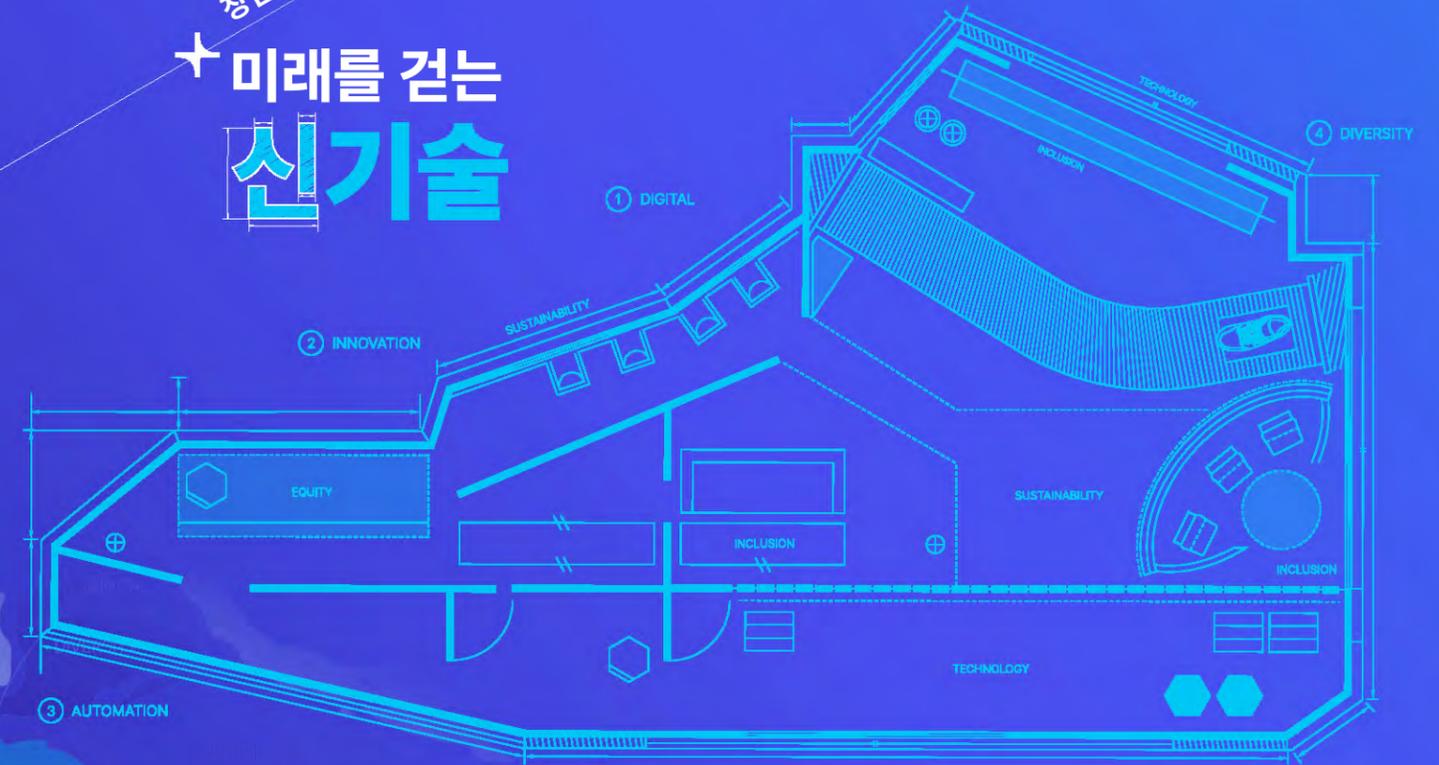
둘째, **감정이입**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명예교수였던 시어도어 레빗(Theodore H. Levitt)은 저서 '마케팅 상상력'에서 "사람들은 0.25인치 드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0.25인치 구멍을 원한다"라는 말을 했다. 드릴은 수단일 뿐이며, 진정 원하는 것은 그 드릴로 뚫는 구멍이라는 것이다. 즉, 소비자는 드릴이 아니라 구멍을 산다. 이를 직장 생활에 적용해 보면, 상대방을 직책이나 직위에 따른 역할로 객관화해서 대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과 같다. 업무만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고민까지 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왜 저럴까'라는 의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윗사람과는 동료, 아랫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있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 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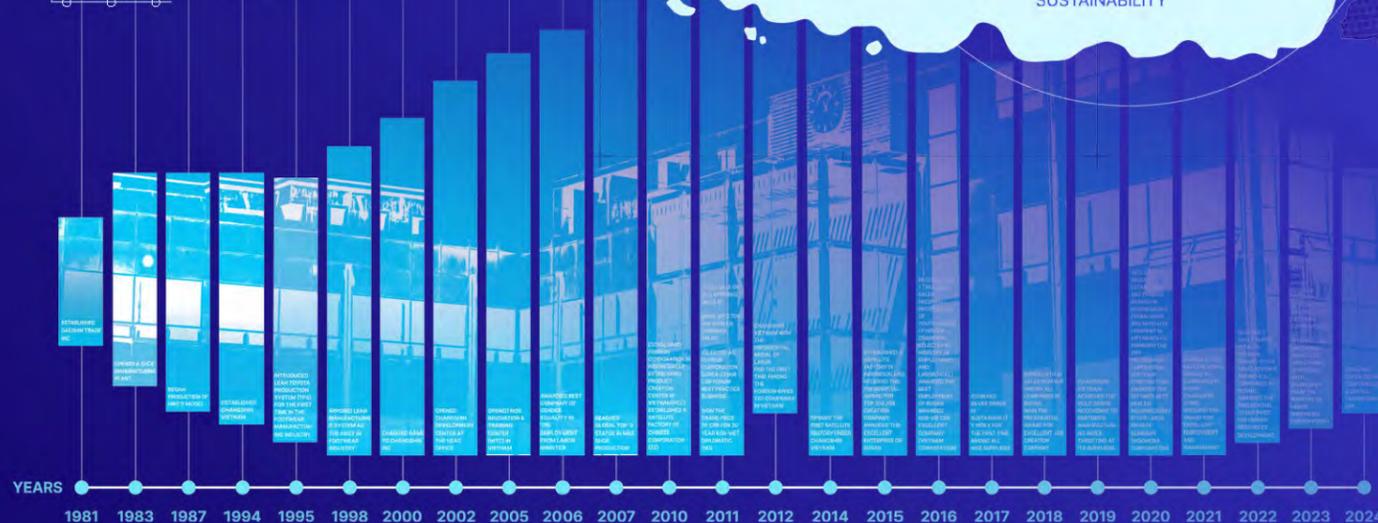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걷다

창신이 나아갈  
+ 미래를 걷는  
**신기술**

창신이 만드는  
+ 세상을 걷는  
**신기술**



창신이 걸어온  
+ 시간을 걷는  
**신기술**



창신그룹 첫 광고  
8월 19일, 부산역과 **CSG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세요.  
@changshin\_official

#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Manufacturing + Future

Manufacturing | MX Designer

## MX Designer \_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MX Designer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부서 및 팀 소개를 통해 일상 속 성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신발을 만든다



전 세계 유일 나이키 육상화 생산을 담당하는 QD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시작으로 매 4년마다 새로운 하이테크가 접목된 신발 생산이라는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선수들의 기록 경신을 위해 끈끈한 팀워크로 함께 아이디어를 내며 한계를 넘어서는 QD 주재원들과 현장 직원들을 만나 올림픽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주재원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을 물었다.

# BREAK THE LIMIT

# ONE TEAM QD!



### 자재/생산 계획 박현길 이사 인터뷰

QD에 대한 깊은 애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공장을 만들고 싶다는 프로 계획러 박현길 이사. 매일 현장을 누비며 담당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객과의 약속인 납기를 철저히 지키는 든든한 수문장, 그의 일에 대한 열정을 들어봤다.

#### Q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

QD의 생산 계획과 자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고객이 요청한 선적일을 100% 준수할 수 있도록 공장의 설비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자재 납기와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전체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한다.

#### Q 업무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현장과의 소통과 품질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불량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계획 수정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매일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문제 발생 요소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조치한다. 계획 수립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계획을 실제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되새기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또한, QD 직원들의 뛰어난 숙련도는 정확한 생산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 QD에는 숙련된 다기능공이 많아 생산 모델 변경 시에도 짧은 램프업(Ramp-up, 생산량 확대) 기간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업계에서 통상 5일 정도 소요되는 램프업 기간을 하루로 단축시키기도 한다. 현장에서 얻는 정보와 직원들의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도 높은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과의 소통은 필수이다.

#### Q 주재원 생활의 원동력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주재원은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의 성취감에서 재미를 찾는다. 기간 내 완벽히 선적을 완수하고 생산 지표와 실적을 달성했을 때, 또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또한,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주재원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매일 아침 만보 걷기 등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나만의 노하우다.

#### Q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구성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QD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인력 운영, 고객사 대응 등 상황에 맞게 변화돼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인력 자연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외주 활용 방안을 준비해왔고, 본사 RSM 그룹과 재봉 외주 업체의 고객사 벤더 시스템 등록을 완료해 외주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주재원을 비롯한 현장 직원들과 함께 QD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개발 나기성 부장 인터뷰**

파리 올림픽 신규 모델의 생산 주역 중 한 명인 나기성 부장을 만나 생산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에 대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Q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나**

14년 차 패턴 엔지니어로 본사와 VJ를 거쳐 QD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다. 트랙애플드 모델의 패턴을 시작으로 러닝과 라이프스타일의 패턴 그리고 작년부터는 툴링 업무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 보통 패턴과 툴링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달라 각각의 전문성을 키우지만, QD 특성상 하나 이상의 직무를 소화해야 하고 **주재원들 간 자발적 협업이 있기에 가능하다.** 바텀 불량률이 발생하면, 현장 관리자 및 유관 부서에서 빠르게 피드백을 준다. 덕분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툴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문제 상황을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덤으로 생겼다.



**Q 기억에 남는 순간**

약 2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휴가는 물론 공장 밖조차 나갈 수 없었다. 그 당시 유일한 즐거움은 퇴근 이후 주재원 모두가 구내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였는데, 힘들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끈끈해진 시기였기에 기억에 남는다.

**Q 하고 싶은 말**

주재원 모두 속스러움을 많이 타서 말투는 투박하지만, 건강이나 가족 안부 등을 물으며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느껴진다. 이런 정과 인연이, 사회생활을 벗어나서도 형, 동생 하는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파리 올림픽 컨셉 사파리 프린팅

**Q 이번 파리 올림픽은 유난히 어려운 도전이었다고**

올림픽을 비롯한 육상 이벤트에는 일관된 디자인 컨셉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컬러 변화를 주지만, 파리 올림픽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나이키 디자이너 킵커 헛필드(Tinker Hatfield)가 타조 프린트의 가죽 소파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는 **'사파리 프린팅(SAFARI Printing)'**이 신발에 전체적으로 덧입혀진 것이다.

프린팅이 추가되면, 각 부품에 디자인 층이 한 겹 더 쌓이는 것이라 압착 중 프린팅이 찢기거나 예상치 못했던 자재의 성질 변화로 접착 불량도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나 추운 겨울에 생산이 진행돼 접착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컸다. **사전 접착 테스트를 3배로 늘렸고 공정에 첫 투입이 될 때면 반드시 현장 품질 점검을 실시했다.** 선수들에게 전달되는 프로모(PROMO) 신발 18,033족 모두 QD 담당자들과 수검을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품질을 철저히 챙겼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QD에게 차원이 다른 도전이었고, 제품 역시 모두의 정성이 담긴 신발이라 자부한다.



**개발 손병일 과장 인터뷰**

매 올림픽마다 전체 올림픽 모델의 생산 관리와 고객사 소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손병일 과장을 만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협력의 자세에 대해 들어봤다.

**Q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

본사에서 개발한 신발들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대량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트랙애플드, 러닝 전 모델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와 같은 올림픽 시즌이 되면, 기존에 생산을 진행했던 모델이라도 디자인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고객사와 소통한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올림픽**

지금까지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6번의 육상 이벤트를 치렀는데 **2020 도쿄 올림픽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 시기와 겹쳐, 자재 수급 지연부터 공장 가동 중단까지 납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걱정으로 밤잠 설친 날도 많았고, 인력이 부족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다.** 다행히 선적을 완수했으나,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새로운 컬러 컨셉으로 이 과정을 다시 치러야 했다. 앞이 막막했고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더 철저히 준비해 **메달리스트의 60% 이상이 QD가 생산한 신발을 신는 좋은 결과**를 냈다. 압박감과 부담감이 매우 컸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가장 컸던 올림픽이었다.

**Q 문제를 해결하는 본인만의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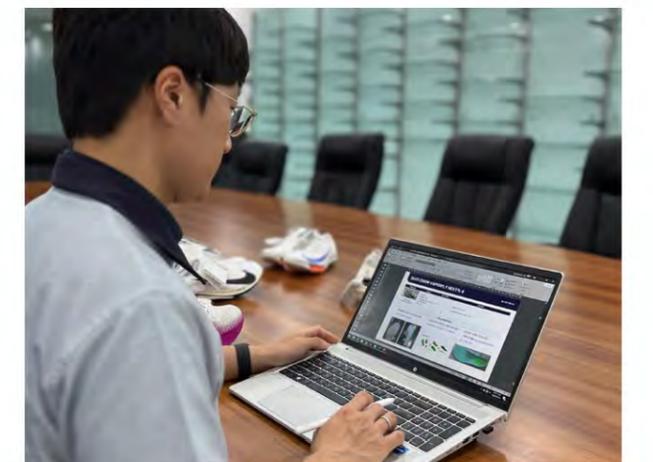
솔직하게 문제를 오픈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QD에는 품질, 개발, 안전 등 주요 안건을 다 같이 토론하는 미팅이 있다. 각 직무의 주재원들과 논의를 하다 보면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는데, 매주 고급 과외를 받고 있는 기분이 든다. 피드백을 받아도 스스로 확신이 드는 방법이 있다면 꼭 투트랙으로 진행해 결과를 확인한다. **어떤 방향이 더 나은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그 과정이 값진 경험이 되더라.**

**Q 협력을 중시하는 것 같다**

생산을 위해서는 본사 개발팀, QD 유관부서 그리고 현장까지 모든 부서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높은 품질의 안정적인 생산'**이 공동의 목표이기에,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보다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돕기 위해 노력한다.** 공정 작업을 돕는 보조도구 제작과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것도 그 이유다. **협력 과정에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와 기회를 얻기도 한다.** 현지 직원들의 데이터경진대회 출품을 보조하며 몰랐던 생산 데이터를 파악하고, 분석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도 협력의 파생 효과라 생각한다.

**Q 이루고 싶은 목표**

최근 중국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와이프가 중국에 잘 적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결혼 이후 현지 팀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생겼다.** 모두가 각 가정의 가장이라는 생각이 드니, 예전보다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배려심을 가진 따뜻한 관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품질 류계선 매니저 인터뷰**

QD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을 직접 점검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27년 차 류계선 매니저를 만나 품질관리를 향한 열정과 책임감을 들어봤다.

**Q 품질팀은 어떤 업무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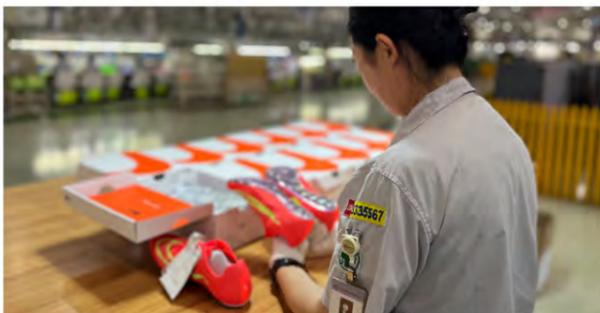
QD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을 CTQ-CTP(Critical To Quality - Critical To Process)를 토대로 점검하고 불량률을 관리한다. 불량률이 많이 발생하는 라인을 집중 점검할 뿐 아니라 직원 교육을 통해 불량률을 낮춘다.

**Q 올림픽 제품 품질을 위한 노력**

육상화는 한 번 개발되면 선수들의 수요에 따라 4년 이상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오랜 기간 점검을 했더라도, 올림픽 오더로 접수되면 신경이 곤두서고 긴장이 많이 된다. 그래서 현장 점검도 몇 배로 늘리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실시간 불량 확인과 작업자 교육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개인적으로는 양품도 점검해 불량과 양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가지려 노력한다. 기준이 있어야 작업자들에게 정확한 방향과 지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Q 기억에 남는 순간**

최근 Alphafly 3가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큰 호응을 얻고 동시에 매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뿌듯했다. 높은 기술력이 적용돼 품질 점검 기준이 까다로워 많은 신경을 썼는데, 노력한 만큼 시장의 반응이 좋다는 소식을 들으면 힘이 나고 큰 성취감이 든다.



**Q 품질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품질은 생산 공장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점검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가끔 시장에서 반품이 들어올 때면 너무 속상하다. 반품된 사유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직접 눈으로 점검했음에도 놓친 품질 불량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 그런 날이면 더욱 철저히 품질을 점검하려 노력한다.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이염 등 발견하기 힘든 품질 문제도 접수되는데, 새로운 불량 종류는 이후 작업 시 검수되도록 철저히 숙지한다. 신발 품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알아가야 할 것이 더 많다.



**Q 앞으로의 계획**

'매일매일 새롭게'라는 창신의 의미에 이끌려 입사한 지 벌써 27년이 지나 은퇴까지 약 2년이 남았다. 함께한 시간 만큼 창신에 대한 애정이 크고 동료들이 창신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 남은 기간은 나만의 품질 점검 노하우를 다음 관리자에게 전수하는 데 몰두할 생각이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MSP 정저란 매니저 인터뷰**

이번 파리 올림픽의 숨은 주역 중 한 명인 정저란 매니저를 만나 사파리 그래픽을 미드솔에 구현해 내기 위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익숙함을 위한 끝없는 노력에 대해 들어봤다.

**Q MSP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프레이와 열전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드솔에 고객사가 요청한 디자인을 구현을 해내는 팀이다. 이전에는 자동화 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수작업으로 공정을 진행한다.

**Q 사파리 프린팅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7년째 MSP팀의 현장 관리자로 있지만, 이번 사파리 프린팅은 처음 맞닥뜨린 순간부터 당황했고 품질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다. 미드솔에 디자인 층을 한 겹 쌓기 위해서는 디자인된 필름을 열로 전사시키는 폴리 전사(Poly Transfer) 공정을 이용한다. 폴리 전사는 판박이 스티커와 유사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작은 부위에 이 공정을 활용했지만, 미드솔 전체에 폴리 전사를, 판박이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다른 공정으로 디자인을 구현하는 외주도 고려했다. 하지만, 올림픽 제품은 보안이 생명이라는 QD 모두의 의견이 있었고 어떻게든 해내자는 의지로 작업자들 스스로 숙련도를 높이는 데 몰두했다. 다른 모델을 생산하면서도 시간을 마련해 연습을 진행했고, 불량 부품을 모두 받아 반복 테스트를 계속했다. 실제 올림픽 모델을 생산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향상된 숙련도 덕분에 무사히 해낼 수 있었다.



**Q 작업 시 가장 중시하는 부분**

미드솔에 디자인을 구현하는 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의 기술력이 품질을 좌우한다. 반복적인 작업으로 이미 숙련도가 높아졌을지라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야만 사파리 프린팅처럼 어려운 디자인에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개선점을 짚어주고, 각자가 담당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해 책임감을 가지고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Q 하고 싶은 말**

올림픽 육상 경기가 있으면 동료들과 함께 중계를 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모두 가슴이 콩닥거리고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내면 기쁨이 벅차오른다고 이야기를 나눈다. 현장 직원으로 시작해 관리자가 된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과 성취감을 준 창신이 좋고 지금보다 더 인정받는 공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기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 있더라도 함께 노력해 넘어서겠다.



# CSG News Pick

##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 #여성리더십

## 창신 차세대 여성 리더 10인, 컨퍼런스 참가

창신의 미래를 이끌 여성 리더 10명이 지난 5월 31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차세대 여성 리더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들은 컨퍼런스를 통해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새로운 시각을 얻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이 주관하는 '차세대 여성 리더 컨퍼런스'는 2009년부터 매년 2회 개최되며, 여성 리더십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에 기여해 왔다. 특히 30회를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는 '일-나에게 있어 일의 진정한 의미'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창신은 2022년부터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총 39명의 여성 임직원이 참여했다. Fitness팀 조윤주 과장은 "회사에서 얻는 경험과 성장 기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FLM팀 조한미 과장은 "일의 목적과 가치를 하루 만에 찾을 수는 없었지만,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회사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제31회 차세대 여성 리더 컨퍼런스는 오는 11월 20일 개최될 예정이다.



제30회 차세대 여성 리더 컨퍼런스에 참석한 창신의 차세대 여성 리더들. (왼쪽부터) Ws Lifestyle 구주리 과장, TE3 임혜숙 차장, Running 민소라 과장, FLM 조한미 과장, CTO 이강란, GP 김서아 과장, Security 정유진 과장, BS 박혜원 대리, Fitness 조윤주 과장, 원가회계 최미향 과장

### #Offshore

## JJ, 설립 14주년 기념 '제1회 창작 가요 대회' 개최

JJ는 설립 14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소통과 재충전을 위한 '제1회 창작 가요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JJ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37개 팀, 200여 명의 직원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6월 10일, 창립기념일에 직접 작사한 노래와 안무, 밴드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등을 차지한 Plant G 멜라 아멜리아니(Mela Ameliani)는 "가사와 멜로디 수정, 퇴근 후 연습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꿈만 같은 공연과 수상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창작 가요 대회는 직원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JJ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JJ 리더십과 현지 직원들이 지난 6월 10일 JJ에서 열린 설립 14주년 기념식에서 인도네시아 전통의례음식, 퐁퐁(Tumpeng)을 커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JJ 김승용 전무, 이상선 GM

# CSG News Pick

##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 #개선제안

## 2024년 2분기 개선제안제도 시상식 진행

지난 7월 9일, 본사에서 진행된 '2024년 2분기 개선제안제도 시상식'에서 창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혁신 아이디어들이 주목받았다. 1차 심사를 통과한 24건의 제안 중, 열띤 경쟁 끝에 최종 5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영예의 1등은 PE 윤정현 대리의 '특수 형상 BPM HOT & CHILLER MOLD 제작 프로세스 개선' 제안이 차지했다. BPM(Back Part Molding) 공정의 몰드 시제품

(Rapid Prototype) 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 3D 프린팅 방식 대신 플라스틱 소재(Polyethylene) 가공법을 제안하여 비용 절감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정현 대리는 "작은 아이디어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서 기쁘다. 앞으로도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회사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개선제안제도는 작은 개선도 존중하고 장려하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재정비를 거쳐 활성화되고 있다. 2023년에는 '폴리 전사 보조 치공구 개선'이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 생산에 적용되어 약 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록했다. 넓은 범위의 미드솔 폴리 전사 작업 시 사이즈별 서포트 장치 제작이 필요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한 대의 서포트 장치로 모든 사이즈를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2024 2분기 개선제안제도 수상자

- PE 윤정현 대리** 특수 형상 BPM HOT & CHILLER MOLD 제작 프로세스 개선
- TE 김경수 차장** SP25 Jordan Proto V2 Sidewall Top Outsole 풀칠 치구 개발
- 재봉 송유진 사원** Dynamo 2 Easy on JIG & 치공구 개선
- PMP 문석준 과장** 합포 TAG 신설
- 재봉 주춘희, 김정은 사원** Jordan Buffing 그라인더 개선



2024 2분기 개선제안제도 수상자(왼쪽부터 PMP 문석준 과장, 재봉 송유진, 주춘희, 김정은 사원, TE 김경수 차장, PE 윤정현 대리)와 심사 위원(오른쪽부터 이진우 상무, 김병준 전무, 김재원 이사)이 시상식 직후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PE 윤정현 대리가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 결과 발표에 앞서 주관부서 공정혁신팀 김명관 사원이 2분기 개선제안제도 접수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2024 3분기 개선제안제도

접수일자 9월 10일 까지

참여대상 CSG 본사 구성원 누구나

참여방법 ① MyCS  
베스트제안 → Smart Place  
→ 제안관리 → 제안등록

② 구글 링크  
<https://url.kr/1N4sFE>

③ 본사 현장 개선 제안함(재단, 재봉, 제조, 3P)

# CSG News Pick

##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Workw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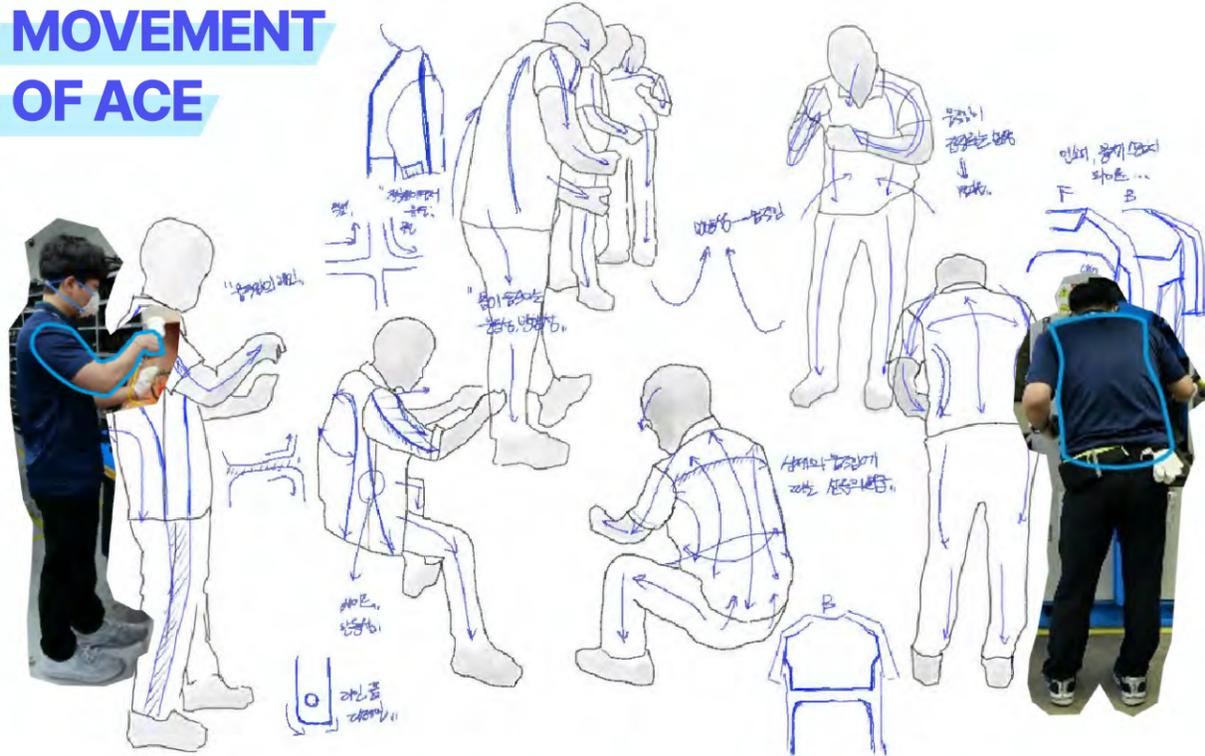
### CSG 워크웨어 런칭

창신은 새롭게 통합·개발된 CSG 워크웨어 착용으로 임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 통합에 나섰다. 지금까지 창신은 법인별로 각기 다른, 총 54종류의 워크웨어를 착용했지만 이번 리뉴얼을 통해 8종으로 통합되면서 전 세계 창신 임직원들은 같은 디자인의 워크웨어를 입게 된다.

CSG 워크웨어는 창신인이 신발을 만드는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은 선과 면을 활용한 디자인과 브랜드 컬러 (Infinite Blue)가 접목되었다. 또한 본사 및 해외법인 직원들의 착용 테스트를 거쳐 작업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용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무한한 가능성을 만드는 창신 에이스들의 움직임

### MOVEMENT OF ACE





**“창신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워크웨어를 만들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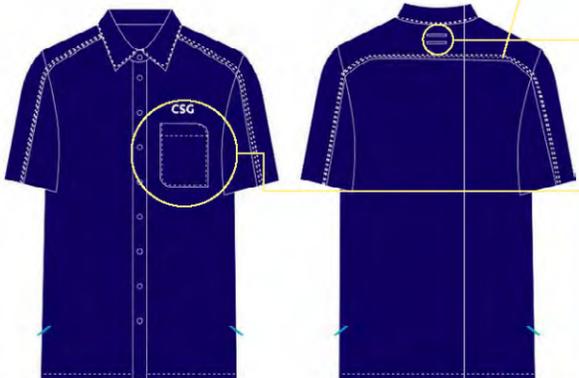
WORKWORK 이두성 대표  
대한민국패션대전 대통령상 수상(2013)

CSG 워크웨어는, 도넛으로 유명한 노트드(Knotted), 화장품 브랜드 탬버린즈(Tamburins) 등의 워크웨어를 작업한 WORKWORK(워크워크) 이두성 대표가 디자인했다.

본사는 올해 초 동복 및 7월 하복 지급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춘추복 지급을 앞두고 있다. 해외법인은 8월 말 VJ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워크웨어를 교체할 예정이다. 권종현 노조위원장은 “기성복에 비해 디자인도 트렌디하고 실용성을 고려한 게 느껴진다.”며 “특히 전 세계 임직원들이 같은 디자인의 워크웨어로 일을 한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전했다.

창신 에이스들의 움직임을 담은

### CSG 워크웨어



**Point 1** 창신인의 움직임을 선과 면으로 디자인화

**Point 2** 창신 심볼의 두 선(가능성의 길) 디테일을 목 뒷부분에 공통 적용 

**Point 3** 간단한 소도구를 넣을 수 있는, CSG 그래픽 모티프 디자인의 포켓 공통 적용 

**Point 4** CSG 브랜드 컬러 활용  
■ Infinite Blue ■ Cyan Blue



# CSG News Pick

##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Craftsmanship

### 창신, 부산 소재 특성화 고교생 채용 연계 우수 사례로 소개

창신의 '재봉 Craftsmanship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하 Craftsmanship 프로그램)이 지난 6월 3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주최한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역협력위원회 정기 협의회'에서 부산형 특성화고 채용 연계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다. 창신은 유일한 기업 사례로 선정되어 본사 HRD 차준호 차장과 Workshop 홍승아 사원이 참석했다.

2023년 Craftsmanship 프로그램을 통해 재봉 파트에 올해 입사한 홍승아 사원은 "프로그램을 통해 신발 산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취업까지 성공했다"며 "앞으로 해외 공장에 기술을 전수하는 재봉 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HRD 차준호 차장은 Craftsmanship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부산 지역 특성화고 인재들이 창신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 기업과 지역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Craftsmanship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교육부 주관 특성화고 채용 연계 사업으로, 창신은 2023년부터 참여하여 지역 인재 채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HRD 차준호 차장이 Craftsmanship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역협력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재봉 홍승아 사원이 Craftsmanship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전하고 있다



# Notice

## 광고 페이지

디지털 사내보 TALK<sup>2</sup>는 창신인들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게재 가능합니다.

문의

Communications팀

# TALK<sup>2</sup>

# 테니스 동호회 피스(PEACE)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는 '피스'는 지난해 사하구청장배 테니스 대회에서 참가자 전원 예선 통과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뛰고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고 평온한(PEACE) 시간을 가질 동호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CSG 임직원, '테니스'를 좋아하는 지인 누구나

**활동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 8시 또는 10시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 10시 또는 12시

**활동 장소**  
을숙도 실내 테니스 코트

**신청 방법**  
운영진에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회장 최종규 차장 (010-4229-4195)  
총무 추성주 부장 (010-3903-3964)**



## Lean 단상 35호

# 커뮤니케이션(소통)

글 | LEAN그룹 박성민 부장



생성형 AI 'DALL-E 3'로 제작한 소통의 이미지

조선 후기에 지어진 야담(野談) 집인 『축수편(逐睡篇)』에서 전하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 '함흥차사'는 조선 초 태조 이성계를 모시러 함흥에 갔다 돌아오지 않은 사신을 가리키며 심부름을 간 사람이 소식이 아주 없거나 회답이 좀처럼 오지 않음을 비유한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빠른 커뮤니케이션과 신속한 의사 결정이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기업들은 더욱 변화무쌍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기업의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원칙을 통해 빠른 회신과 더불어 신속한 의사 결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빠른 커뮤니케이션, 신속한 의사결정)는 Lean의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창신은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문의에 대해 즉각 응답하고 내부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GMES\*, Data Platform 등과 같은 Digital Tool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속한 의사 결정 속도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 중에 있음을 인지하고 각자의 역할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창신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앞으로도 빠른 커뮤니케이션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본이 되는 Lean 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VISION 2028 The AceMaker'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MOVE'하고 혁신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GMES(Global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 계획, 작업 지시, 자재 소요, 생산성 분석 등 생산 관리의 효율 향상을 위한 실시간 생산 실행 시스템

# Trend Catcher

[ News Clipping | Vol.71 ]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July 2024

작성 | 경영기획팀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NIKE

## NIKE 2024 회계연도 매출, 전년 대비 1% 증가... 파리 올림픽이 반등의 기회

- 2024 회계연도\* 전체 매출, 513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 증가. COVID-19 기간 제외, 지난 14년간 연간 매출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수준
- 2024 회계연도 4분기(3~5월) 매출은 12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
- 러닝 부문의 고전이 매출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2024 파리 올림픽을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힘
- 매튜 프렌드(Matthew Friend) CFO “하락세 회복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상품 라인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은 매출이 하락할 것”

\*2024 회계연도: 2023년 6월~2024년 5월

NEWSIS

## 전문가들, NIKE 현 상황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

- NIKE, 현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다각적 노력 중. 소비자 직접 판매 방식에 집중해 수익성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니즈 파악에 집중
- 전문가들은 NIKE의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글로벌비즈

# 경쟁사 / 산업

## 스위스 브랜드 '온(On)', 올림픽에서 중장거리 러닝화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 선보여

- 스위스 스포츠 웨어 브랜드 온(On), 파리 올림픽 겨냥 중장거리 러닝화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 런칭
-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는 신발끈이 없고 가벼운 무게가 특징
- 케냐의 중장거리 육상 선수 헬렌 온산도 오비리(Hellen Onsando Obiri)는 올해 보스턴 마라톤에서 '클라우드 붐'을 신고 우승하였으며, 파리 올림픽에서도 착용해 3위를 기록



경향신문

## PUMA, 파리 올림픽 겨냥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 선공개

- PUMA는 7월 1일 쇼케이스에서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DEViate NITRO 3)' 시리즈를 선공개
- EVA 폼에 질소를 주입해 미드솔을 만드는 PUMA의 혁신 기술, 나이트로 폼(NITRO FOAM)이 적용된 3번째 '디비에이트' 시리즈
- '디비에이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탈의 의미를 담음
- 통기성이 뛰어난 갑피와 부하가 집중되는 부위의 패딩 처리를 통해 압력을 분산시켜 오랜 야외활동에도 쾌적한 착화감을 선사



한스경제

# TALK<sup>2</sup>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본지는 창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